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써,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그리스도를 삶으로써,
또한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삶**

4/11 월요일

아침의 누림

요 6:63

63 생명을 주시는 분은 그 영이십니다. 육체는 무익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고전 12:13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 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요 4:14

14 누구든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원천이 되어 샘솟아 올라 영원한 생명에 이를 것입니다.”

요 7:37

37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십시오.

애 3:55-56

55 “오, 여호와님! 저는 아주 깊은 구덩이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6 주님은 제 음성을 들으셨으니 제 호함과 부르짖음에 주님의 귀를 막지 말아 주십시오.

롬 10:12-13

12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이니,

13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딤후 3:16

16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숨을 내쉬신 것이며, 가르치고 가책받게 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는 데에 유익합니다.

가정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이다. 가정에서 음식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가정인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살고 신성한 삼일성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우리의 음식으로 누려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에 의해 살아야 한다(비교 요 6:57 하-58). 그분은 우리의 음식이다. 그분은 이제 부활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 ...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가 먹기에 좋으시다. 그분은 죽음과 부활을 성취하신 후에 우리가 그분을 먹을 수 있도록 완성되었다. 그분은 부활 안에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기적으로 먹기에 좋으시다.(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9 장, 13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영을 소홀히 하며 성경을 문자에 속한 책으로 취한다. 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내가 여러분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입니다.”(요 6:63) 더욱이 ...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숨이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말씀 안에 체현된 신성한 숨을 들이쉬어야 한다(비교 딤후 3:16). 만일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사용함으로써 신성한 숨을 들이쉬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에서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숨을 들이쉬는다면, 우리는 신성하고 하늘에 속하며 영적인 요소에 의하여 살아나게 될 것이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눈과 생각과 영을 사용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께 감사드린다. 우리는 눈으로 말씀의 몸을 접촉하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씀의 혼을 접촉하며, 우리의

영을 사용하여 말씀을 기도함으로 말씀의 영을 접촉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성경의 어떤 부분의 의미를 이해할 뿐 아니라, 또한 신성한 숨을 들이쉬므로써 생명 공급을 받을 수 있다.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6 장, 55-56 쪽)

하나님께서 그분의 경륜 안에서 가지신 의도는 생수의 원천 곧 근원이 되시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을 만족시켜 주시고 그들의 누림이 되시는 것이며, 그 목표는 하나님의 증가이자 하나님의 확장인 교회 곧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님의 총만인 교회를 산출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갈망과 그분의 선한 기쁨이다(엡 1:5, 9). 이러한 사상의 완전한 발전은 신약 안에 있지만, 그것은 예레미야서 2 장 13 절에 써로서 뿌려져 있다.

고린도전서 10 장 3 절과 4 절에서 바울은 구약의 예표들을 사용하여 마시는 것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먹는 것에 대해서도 말한다. ... 영적인 음식은 만나(출 16:14-18)를 가리키며, 우리의 매일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영적인 물은 갈라진 반석에서 흘러나온 생수(출 17:6)를 가리키며,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에게서 흘러나온,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물이신 그 영을 예표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수로 마시는 것은 그분의 증가인 교회를 위한 것이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한 그분의 확장, 그분의 총만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3 장, 27-28 쪽)

부활 안에 있는 생명수의 흐름은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고전 12:13). 우리는 모두 동일한 영을 마시기 때문에 한 몸이 될 수 있다. 부활 안에서 한 영을 마실 때,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 되고 몸으로 건축된다.

부활 안에 있는 생수의 흐름은 또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비하기 위한 것이다. 요한계시록 22 장 17 절에 따르면, 그 영과 신부는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외친다. 신부는

마심으로써 예비된다. 신부가 마시는 물은 그 영이다. 그 영을 마심으로써 신부는 그 영과 하나 된다. 이것은 단지 교리나 가르침에 불과한 것이어서는 안되며, 우리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실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매일매일 생수를 마신다면, 그리스도의 몸이 건축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예비될 것이다.(출애굽기 라이프 스타디, 4 장, 527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6 장; 성경 교사들을 위한 훈련, 2 장

4/12 화요일

아침의 누림

민 20:8

8 “너는 막대기를 들고, 너의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눈앞에서 저 반석을 향해 물을 내라고 말하여라. 너는 그들을 위하여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고 회중과 그들의 가족이 마시게 하여라.”

요 6:57

57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입니다.

사 12:4-6

4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

5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그분께서 장엄한 일을 하셨음이라!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하여라!

6 외치며 환호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 가운데 위대하신 까닭이라.”

애 3:22-25

22 여호와와의 자애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 그분의 자비는 무궁하다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님의 신실은 크기도 하십니다.

24 ‘여호와와는 나의 몫 그러기에 나 그분께 소망을 둔다네.’ 하고 내 혼은 말한다네.

25 여호와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찾는 혼에게 그분은 좋으신 분.

렘 15:16

16 주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제가 그것을 먹었더니 주님의 말씀이 제게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되었습니다. 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 이는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까닭입니다.

신성한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걷는 길을 생각해 보자. ... 우리는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사 12:4 상). 더 나아가, 구원의 샘들에서 물을 걷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구원의 일을 사람들 가운데 알리고 그분의 이름을 그들 가운데서 높여야 한다(4 하절).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장엄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 그분을 향해 노래해야 하며,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해야 한다(5 절).(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40 장, 32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영이 있으며,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 ... 여러분은 모든 일에서 그분과 대화하고 의논할 수 있다. 주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빌 4:6)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만일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은 다만 그분께 말씀드려야 한다. 그분은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과 함께 얼굴을 마주 대하고 계신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신 삼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괴롭히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변호자와 위로자와 지지자가 되시기 위한 것이다. 나는 항상 “오, 주님, 이제 저는 산책을 하려 합니다. 저를 부축하시고 북돋우시며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 이것이 주님을 마시는 것이다. ... 염려가 올 때마다 여러분은 “오, 주님, 이 염려는 당신의 것입니다. 저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저를 위해 염려를 짊어지시니 저는 염려를 당신께 드립니다.”라고 말해야 한다. 이리하여 여러분은 주님의 요소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며, 여러분 안에서 신진대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날 것이다. 그 결과 여러분을 통하여 외적으로 표현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 이 비결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생각한다. 실지로 여러분은 단지 지속적으로 주님과 말하는 것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를 살 것이다. (위트니스리 고봉메시지, 5 권,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70-71 쪽)

요한복음 6 장 57 절에 있는 ‘-로 말미암아(because of)’라는 표현은 어떤 요인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에서 사용한) ‘-에 의해(by)’라는 단어는 요인이 아닌 수단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에 의해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행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을 함축한다. 이것은 걷기 위해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행함의 요인이심을 가리킨다. 이러한 이해는 ‘-로 말미암아’에 대한 헬라어 단어의 의미와 부합한다. 요한복음 14 장 19 절은 우리가 부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사는 것을 계시한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 그분도 사시고 우리도 산다. 우리는 그저 그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도구로 취하여 그리스도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의 요인으로 취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수단이 아니라 공급을 주는 요인이다. 우리는 음식에 의해 살지 않고 음식으로 말미암아 산다. 음식은 우리에게 공급을 줌으로써 우리가 그 음식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게 한다. ... 우리가 먹지 않으면 음식은 우리의 생활의 요인이 될 수 없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살고, 그리스도를 먹음으로써 그리스도를 산다. ... 활력을 주는 그리스도의 요소는 공급과 요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살게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었고, 지금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 안에서 사신다 (갈 2:20). ...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화되심으로 우리 안에 사신다. 그분은 이제 우리를 살게 하는 공급과 요인이 되셨다. 우리는 공급을 주는 요인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라는 말은 우리가 끝났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뒷부분의 '이제 내가 ... 사는 생명'이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해서 산다는 것을 가리킨다. ...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면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살게 하는 요인이 되신다.(생명의 체험과 성장, 3 장, 24-25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생명의 체험과 성장, 2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5 권, 하나님의 구원의 유기적인 방면, 4 장

4/13 수요일

아침의 누림

빌 1:19-21

19 왜냐하면 여러분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떤 일에서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항상 그러하였듯이

지금도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21 왜냐하면 나에게 있어서 삶은 그리스도이고, 나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고후 3:6

6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빌 2:12-13

12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항상 순종한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십시오.

13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기쁨을 위하여 여러분 안에서 운행하시어, 여러분이 뜻을 세우도록 하실 뿐만 아니라 행하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빌 3:7-10

7 그러나 나에게 유익이 되었던 것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8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또한 해로운 것으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9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의입니다.

10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골 1:24

24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받는 나의 고난을 기뻐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웁니다.

신성한 삼일성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사는 것이다(빌 1:20-21 상). ...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넘치는 공급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산다(19 절). 우리가 그 영에 의해 살고 행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해 그리스도를 산다. 우리의 생활의 요인과 요소와 영역은 생명 주시는 영, 곧 넘치는 공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은 그 영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의미한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 공급이 되시는 풍성한 그 영이시며, 또한 우리의 영 안에 계신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영이라는 문제를 강조해야 한다. ... 우리는 우리의 영으로 돌이키고, 우리의 영을 훈련하며, 우리의 영을 분발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부활 그 자체이신 살아 계신 분, 곧 생명 주시는 영이신 공기같은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신성한 삼일성 안에 한 삼일성과 함께 삶, 9 장, 135-136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영의 넘치는 공급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과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부활과 승천을 갖는다.

그 영은 오늘날 단지 하나님의 영이나 여호와와 영이나 성령만이 아니시다. 육체되심, 인간 생활, 십자가에 못 박히심, 부활, 승천의 과정을 거치신 그 영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분 안에는 모든 종류의 신성하고 영적이며 하늘에 속한 성분들을 포함한 살아 있는 공급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이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바울의 환경은 그를 그의 구원에 이르게 했다. 그는 이 넘치는 공급을 통하여 끊임없이 순간순간 구원받았다.

바울의 몸이 고난을 받을 때 그리스도께서 확대되었다. 즉, 그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이 드러나고 선포되었으며, 그분께서 높아지시고 또 높이 찬양을 받으셨다. 그의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시다는 것을 표현할 기회를 그에게 준 것이었다. 율법이나 할례가 아닌 그리스도만이 바울 안에서 확대되었다. ...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은 그분을 최고의 누림으로 체험하는 것이다.

‘확대하다’라는 말은 우리가 보기에 어떤 것이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주적으로 크신데 어떻게 그분이 확대되실 수 있는지 의아해할 것이다. 에베소서 3 장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차원 즉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들은 우주의 차원이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넓으시고 광대하시며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황제의 경비대인 근위대가 보기에는 그리스도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확대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앞에서, 특히 감옥에서 그를 지키는 이들의 눈앞에서 그리스도를 위대하시게 했다. 그 결과 결국 몇 명이 그리스도께 돌이켰다. 이것에 대한 증거를 빌립보서 4 장 22 절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서 바울은 가이사 집안에 속한 성도들에 대해 말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확대함을 통해 가이사 집안에 속한 몇몇의 사람들까지도 구원받았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당시에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멸시를 받았다. 로마인들은 정복자들이었고, 유대인들은 정복당한 이들이었다. 이 정복당한 이들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의 한 사람이 있었다. 비록 그분은 위대하시고 가장 놀라우신 분이시지만, 로마인들이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리스도를 확대하여, 자신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의 눈에 그리스도께서 위대하게 나타나시도록 했다.

여러분이 일하는 곳이나 다니는 학교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멸시할지 모른다. 그들은 주님을 비웃고 주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지도 모른다. ... 그러므로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작게 보지 않고 확장되고 확대된 방식으로 보게 해야 한다.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48 장, 456-458 쪽, 6 장, 57-59 쪽)

추가로 읽을 말씀: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6, 31-32, 34, 47-48 장; 시편 라이프 스타디, 40 장

4/14 목요일

아침의 누림

빌 4:4

4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엡 3:8

8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이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전하게 하시고

시 34:3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 함께 그분의 이름을 높이세.

시 69:30

30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그분을 찬양하리니

눅 1:46-47

46 그러자 마리아가 말하였다. “내 혼이 주님을 찬양하며,

47 내 영이 하나님 나의 구주에 대하여 크게 기뻐한 것은

행 10:47-48

47 “이 사람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는데, 물 침례 받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48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침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행 19:17

17 이 일이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알려지자, 그들은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혔으며, 주 예수님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었다.

요 17:11, 21

11 나는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지만,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안에 그들을 지키시어, 우리가 하나인 것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21 그들이 모두 하나 되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같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도록 하여 주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노년의 사람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간수들은 그가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지쳐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바울은 전혀 지치지 않았고 기쁨이 충만했으며 주님 안에서 기뻐하였다. 나는 바울이 그리스도를 비추어 내고 표현했으리라고 확신한다. 그와 같은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신 것에 대한 선포이자 그리스도께서 다함이 없으신 것에 대한 선포였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6 장, 60 쪽)

오늘의 읽을 말씀

우리의 타고난 인내는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인내이신 그리스도는 무한하시다. 우리는 모두 인내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능력은 어느 정도까지일 뿐이다. 어느 정도에 이를 때 우리는 자극을 받아 화를 낼 것이다. ... 우리의 타고난 인내는 너무나 제한적이지만, 인내이신 그리스도는 고갈되지 않으시며 측량할 수 없는 분이시다.

비록 바울이 분명 감옥에서 학대를 받았겠지만, 그는 기뻐할 수 있었고, 지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무한히 위대하신 것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특별히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고갈되지 않는 인내이심을 보여 주었다. 그리스도는 확실히 바울의 물질적인 몸에서 확대되었다. 날마다 바울은 주님 안에서 기뻐했다. 시간이 지나도 그의 기쁨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는 기뻐하는 가운데, 자신이 체험하고 누리 측량할 수 없으신 그리스도를 보여 줄 수 있었다. 이렇게 바울은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전시하고 높이고 또 높이 찬양했다. 나는 바울이 간수들에게 마음이 상했거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으리라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인으로서,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역량과 능력과 인내와 사랑과 지혜에 관하여 증언했다. 간수들은 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바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기이하고 특이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바울에게서 느꼈던 것은 바로 확대되신 그리스도였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위대하신 것을 확대하여 표현했다. 바울은 매사에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확대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확대함으로써 바울은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었다.(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6 장, 60-61 쪽)

바울의 생활은 사실 생명 주시는 영의 표현이었다. 바울은 일상생활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전파한 바로 그 그리스도의 표현이었다. ... 몰타섬에서 그는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신 그러한 그리스도를 살았다. ...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생활에 관한 누가의 기록을 읽을 때, 그의 생활이 육체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이었음을 본다.

주님은 사도를 폭풍이 이는 바다 위에서 함께 항해하는 사람들의 주인으로만 아니라(행 27:24), 생명의 보증인과 위로자로 삼으셨다(22-25 절). 더 나아가 이제 평온한 육지에서 주님은 그를, 미신적인 사람들 눈에 신기한 매력을 지닌 사람으로만 아니라(행 28:3-6), 원주민들의 치료자와 기쁨이 되게 하셨다(8-9 절). 사도가 오랫동안 감금된 채 순탄하지 않은 항해를 계속하는 동안, 주님은 사도를 그분의 초월 안에 있게 하시고 염려가 없는 삶, 가장 뛰어난 신성한 속성들을 표현하는 최고 수준의 인간 미덕을 지닌 완전히 위엄 있는 삶, 수년 전에 주님 자신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과 닮은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성하게 부요해진 인성 안에서 또 다시 이 땅에 사시는 것이었다! 이것은 복음서들에서 사셨던, 놀랍고 탁월하고 비밀한 하나님-사람께서 그분의 많은 지체 중 한 사람을 통해 사도행전에서 계속해서 사시는 것이었다! 이 사람은 육체가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께서 높이신 그리스도의 살아 있는 증인이었다! 바울은 항해하는 동안 그리스도를 살며 확대했다. 사람들이 극진한 예우를 갖추어(행 28:10), 즉 지대한 존경과 최고의 경의로 그와 그의 일행들을 예우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71 장, 601-602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70-72 장; 예레미야 라이프 스타디, 3-4 장; 윌트니스 리 전집, 1972년, 1 권, 그리스도를 누리는 살아 있고 실지적인 길, 3-4 장

4/15 금요일

아침의 누림

갈 6:18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히 4:16

16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때맞추어 도움을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갈 3:6-9, 14

6 이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7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아십시오.

8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근거로 이방인들을 의롭다 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서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였습시다. “모든 민족이 네 안에서 복을 받으리라.”

9 그러므로 믿음에 속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습니다.

14 그것은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방인들에게 이를 수 있도록, 즉 약속하신 그 영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롬 5:17, 21

17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 노릇을 하였다면, 은혜를 넘치게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사람들은 더욱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21 죄가 죽음 안에서 왕 노릇을 한 것같이, 은혜도 의를 통하여 왕으로서 다스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림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다. ... 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 곧 신성한 삼일성의 체현이신 분을 체험한다. 공기 같은 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의 부활로서, 우리가 그분을 은혜로 누리도록 믿음을 산출하신다.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 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산다.(신성한 삼일성 안에서 신성한 삼일성과 함께 삶, 9 장, 137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그 영을 은혜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비교 히 10:29)은 그 영과 은혜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마치 '생명의 영'이라는 표현이 그 영과 생명이 서로 다른 두 가지 것을 의미하지 않는 것과 같다. 오히려 그 영과 생명이 하나이듯이 그 영과 은혜도 하나이다. ... 성경에서 은혜의 영에 대해 말할 때, 그것은 은혜이신 그 영을 의미한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누리려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우리의 영임을 알아야 한다. 스위치를 켜야만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움직이시고 기쁨을 바르시는 영을 우리는 오직 우리의 영 안에서만 접촉할 수 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기 원한다면,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하지 말라. 그대신 여러분의 영으로 돌이켜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라. ...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서 우리의 영으로 돌이킬 필요가 있다. 우리의 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은혜의 보좌는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영 안에도 있다. 만일 은혜의 보좌가 하늘에만 있고 우리의 영 안에는 있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우리의 영이 은혜의 보좌를 포함할 정도로 충분히 크지 않다고 따질지도 모른다. ...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은, 체험의 면에서 은혜의 보좌가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나의 체험에서, 나는 나의 영으로 돌이켜 “주 예수님.”이라고 부를 때, 즉시 은혜의 보좌가 나의 영 안에 있음을 느낀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의 영으로 돌이킴으로써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주님께 머리의 권위와 왕권과 지배 권위를 드림으로써 그분을 보좌에 앉으시게 해야 한다. ... 우리는 기도할 때 가끔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분께 기꺼이 보좌를 내어 드리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분께서 왕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자신을 그분보다 높아지게 하고 우리 자신을 보좌에 앉힌다. 언제든지 우리가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지 못하고 그분을 보좌에서 끌어내릴 때, 은혜의 흐름은 중단된다. 우리는 기도하는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보좌에 앉으시게 허락해 드림으로써, 그분을 머리와 주님과 왕으로 공경해야 한다. 그럴 때 은혜가 우리 안에서 강처럼 흐를 것이다.

요한계시록 22 장 1 절과 2 절에서 우리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것을 본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흐르는 은혜의 근원이다. 그분을 보좌에서 끌어내리는 것, 곧 그분에게서 보좌를 빼앗는 것은 은혜의 근원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은혜의 흐름을 그치게 한다. ...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주님을 보좌에 앉으시게 하지 않을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를 많이 받지 못했음을 증언할 수 있다.

영으로 돌이키고 영 안에 머무는 것을 실행하는 가장 좋은 길은, 정해진 기도 시간을 갖는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로 주님을 접촉하기 위하여 아침에 십 분을 따로 떼어 두었다고 하자. 이 시간 중에 여러분이 해야 하는 유일한 일은 영으로 돌이키고 영안에 머물기를 훈련하는 것이다. 여러분이 그날에 해야 할 모든 일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여러분의 천연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거절하고 여러분의 영을 사용하여 주님을 접촉하라.

우리는 삼일 하나님을 우리의 은혜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은혜로 누릴 때 그분으로 조성될 것이다. 우리는 점점 더 유기적으로 그분과 하나가 될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표현이 될 것이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37 장, 360-36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11, 31, 37 장; 이사야 라이프 스타디, 11, 40 장

4/16 토요일

아침의 누림

갈 6:16-18

16 이 규칙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긍휼이 있기를 바랍니다.

17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 몸에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18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

사 12:1-6

1 그날에 너는 말하리라. “오, 여호와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제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저를 위로해 주십니다.

2 이제 하나님은 저의 구원이시니 저는 두려워하지 않고 신뢰하겠습니다. 야 여호와께서 제 힘과 노래이시며 제 구원이 되신 까닭입니다.”

3 그러기에 너희가 구원의 샘들에서 기뻐하며 물을 길으리라.

4 그날에 너희는 말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하신 일을 여러 백성 가운데 알리며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심을 일깨워 주어라.

5 여호와를 찬송할지니 그분께서 장엄한 일을 하셨음이라! 온 땅이 이것을 알게 하여라!

6 외치며 환호하여라, 시온의 주민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너희 가운데 위대하신 까닭이라.”

요 12:23-26

23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습니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아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25 자기 혼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혼생명을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 혼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혼생명을 보존할 것입니다.

26 누구든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십시오. 내가 있는 그곳에 나를 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 장 16 절의 평안과 18 절의 은혜 사이에, 17 절의 예수님의 낙인에 관한 말씀을 삽입한 이유를 아는 것은 중요하다. ... 바울은 평안과 은혜에 관하여 글을 쓸 때, 그가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평안을 누린다는 것을 깊은 속에서 깨달았다. ... 바울은 은혜를 누리기를 통해 평안한 상태 안으로 이끌렸다. 그는 예수님의 낙인을 지님으로써 그러한 평안 안에 지켜졌다.

예수님의 낙인을 지닌다면 우리 또한 평안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낙인을 지니기를 거절한다면, 우리는 괴로움을 겪을 것이고 우리의 평안은 사라질 것이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은혜를 계속 누리기가 어려울 것이다.(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31 장, 300-301 쪽)

오늘의 읽을 말씀

갈라디아서 6 장 17 절에 있는 낙인이라는 단어는 주인을 나타내기 위해 노예에게 새긴 자국을 가리킨다.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롬 1:1)인 바울에게 찍힌 낙인은 그가 주님을 신실하게 섬길 때 물질적으로 받은 상처 자국들이었다(고후 11:23-27). 영적으로 예수님의 낙인은 바울이 살았던 생활의 특징들, 곧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것과 같은 생활의 특징들을 상징한다. 그러한 생활은 지속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며(요 12:24),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6:38),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7:18),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다(빌 2:8). 바울은 주님의 생활의 특징인 낙인을 지니고 주 예수님의 본을 따랐다. 이 점에서 그는 유대인들과 절대적으로 달랐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섬겼기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다. 고린도후서 11 장 24 절과 25 절에서 그는 ‘마흔에서 하나를 빼 매’를 다섯 번 맞았고, 세 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한 번 돌로 맞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그의 몸에는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동안 섬겨 온 것을 증언해 주는 많은 상처가 있었다. 이러한 상처 또한 예수님의 낙인으로 여겨질 수 있다.

사복음서를 읽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신 한 사람에 대한 묘사를 볼 수 있다. 이러한 생활이 낙인이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그러한 낙인을 지니셨다. 주님은 박해받으셨고 비웃음을 받으셨으며 멸시받으셨고 거절당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는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하심으로써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께 속하셨음을 보여 주는 낙인을 지니셨다. 바울은 주 예수님을 따라 이러한 생활을 했다. 빌립보서 3 장 10 절에서 바울은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언급한다. 바울은 예수님의 고난의 교통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다는 표시인 예수님의 낙인을 지녔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평안이라는 말로 문안 인사를 할 때, 예수님의 낙인이 그를 평안 안에 지켜 주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그는 박해받았고 멸시받았으며 비웃음을 받았고 거절당했으며 유죄판결 받았기 때문에 참으로 자신이 예수님의 낙인을 지녔다고 말할 수 있었다. 바울은 예수님의 낙인을 언급한 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영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형제님들. 아멘.”(갈 6:18)이라고 말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실상 생명 주시는 영의 넘치는 공급과 모든 것을 포함한 누리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박해받으며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그 영의 넘치는 공급을 체험한다. 오,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풍성하고 넘치는 공급이 우리 영과 함께 한다!

바울은 이단의 두목, 광신적 종교 집단의 두목이라는 비난을 받았지만, 자신이 새 창조물을 살고 있다는 것과 그의 영 안에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의 넘치는 공급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낙인을 지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생명 주시는 영의 공급을 누릴 것이다. (갈라디아서 라이프 스타디, 31 장, 301-302, 304 쪽)

추가로 읽을 말씀: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4 장

4/17 주일

아침의 누림

렘 17:7-8

7 여호와를 신뢰하는 사람 자신의 신뢰가 여호와인 사람은 복이 있다.

8 그는 물가에 옮겨 심어진 나무 같아서 그 뿌리를 시냇가로 뺀어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잎이 항상 무성하여 가문 해에도 염려하지 않고 열매 맺기를 그치지 않으리라.

고전 3:6, 9

6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9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경작지이며,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행 27:22-25

22 이제 또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고, 배만 잃을 것입니다.

23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 그분의 천사가 바로 이 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였습니다.

24 ‘바울이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대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을 그대에게 주셨습니다.’

25 그러므로 여러분, 기운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입니다.

행 28:15, 31

15 그곳 형제들이 우리에게 관한 소식을 듣고 아피우스 광장과 트레스 타베르나이라는 곳까지 우리를 맞으러 나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용기를 얻었다.

31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을 가르쳤다.

추가로 읽을 말씀

디모데후서 라이프 스타디, 32 장;
사도행전 라이프 스타디, 70-72 장;
생명의 체험과 성장, 2 장
위트니스 리 고봉 메시지, 12 권, 로마서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결정(하), 24 장
빌립보서 라이프 스타디, 31-32 장;

2022. 4. 11 ~ 2022. 4. 15

**단체로 읽을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길”
21 장**

557 장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1.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은혜의 보좌 만질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의 강물 흐르네
2.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지성소 안에 깊이 들어가 휘장 안에 생활할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빛 나를 덮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광의 빛 나를 덮네
3. 주의 영 안에 함께 돌아와 주 앞에 기도할 때
때에 주의 영 안에 함께 돌아와 주 앞에 기도할 때
때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수 근원 만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생명수 근원 만지네

악보 / 음악 (한 557 / 영 770)

<https://www.hymnal.net/en/hymn/h/770>